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6호 【루계 제25014호】 주체10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더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

원쑤격멸의 기상 세차게 나래친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쑤들을 단매에 요정낼 멸적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눈부신 공사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의 주타격대상인 총살림집내외부미장량은 지금 85%계선을 넘어섰다. 79—가, 나, 다호동과 84—가, 나호동, 85호동을 비롯한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건물의 외부미장공사를 전부 끝내고 외벽타일붙이기와 창문드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건설장적으로 매일 근 2만㎡에 달하는 살림집내외부미장실적이 기록되는 속에 성과는 공공건물건설장에서도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적들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 인민들에겐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격렬한 전투장으로 되고있다.

시공단위별로 력량배치와 건설기계 및 공사자재확보, 수송에 이르는 모든 건설작전이 기동적으로 펼쳐지고 건설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이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시공단위들에서는 수평팔탑식기중기와 혼합물수송차, 작업승강기, 강제식혼합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여 내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통이 큰 일판을 벌려 최단기간에 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모든 시공단위들에서는 발판과 바줄, 다양한 기공구를 자체로 확보하고 미장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장적인 하루 미장실적을 최고 2만 4천㎡수준에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의 앙양된 기세속에 건설장적인 건물내외부미장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뛰여오르고있다.

한편 79—다호동살림집과 85호동살림집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에서는 지금 미장공사가 전부 끝나고 창문드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살림집건설장에 높뛰는 혁명적분위기에 발맞추어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와 철도성려단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기존건물개건보수공사를 맡은 여러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고급중학교와 병원부속건물을 비롯한 큰 규모의 건물물조공사를 속속 결속하는 동시에 미장을 비롯한 나머지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모든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드센 창조의 마치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심정으로 건설장도로관리와 지대정리작업도 다그쳐 현장의 면모를 하루가 다르게 일신시키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며칠안으로 모든 건물들의 미장공사와 외부벽체타일붙이기를 전부 완성할 목표밑에 공사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시공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속에 건설장에서 원쑤격멸의 기상은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전선에서 만나자

◇온 나라가 하나의 큰 전선처럼 화하였다.

전선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전장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모두는 최후결사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보위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생활이 꽃펴나고있는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보루를 수호하기 위한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인민군장병들이 멸적의 서리발총창을 억세게 틀어쥐고 전시상태에 들어갔으며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선지대들에서는 언제든지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다. 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에만도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조국수호의 총대를 추켜든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면서 결전의 시각을 한초한초 기다리고있다.

때는 왔다. 그 누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개나발을 불어대는 원쑤놈들에게 남은것은 오직 하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원쑤격멸의 의지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 《전선에서 만나자》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각지에서 앞을 다투어 진행되는 탄원모임들에서도 이 노래가 힘차게 울려나왔으며 서슬푸른 총창이 원쑤들을 겨눈 최전연초소들에서도 이 노래가 8월의 주제가마냥 메아리치고있다. 지금 그 어디에서나 제일먼저 우렁차게 울려나오는 이 노래에는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키려는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열, 원쑤들과는 오직 총대로 결산하겠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이 력력히 비껴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맹세다지고있다.

우리모두 전선에서 만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후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결사옹위, 조국수호의 대합창은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과 《조국보위의 노래》,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와 같은 1950년대의 전시가요들, 《전선에서 만나자》,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내가 지켜선 조국》과 같은 조국수호의 노래들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극악무도한 원쑤의 무리들을 죽탕쳐버릴 혁명적열의를 백배해주고있다.

이제 세계는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결사옹위의 노래, 조국수호의 대합창의 위력이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알게 될것이다.

백두의 밀림에서 메아리친 항일의 혁명가요들이 조국해방의 위대한 사변을 온 세상에 전하는 환호성으로 이어진것처럼, 1950년대의 전시가요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자랑찬 승리의 만세소리로 울려퍼진것처럼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조국수호의 대합창을 심장으로 부르며 이 땅우에 김정은시대의 장쾌한 승리를 불러오고야말것이다.

수천척지하막장들에 울리는 증산의 포성

석탄공업부문 각지 탄광들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뚜렷한 굴진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기본굴진, 준비굴진실적이 각각 112%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각지 탄광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원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천m를 더 굴진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각지 탄광 고속도굴진, 굴진소대 굴진공들이 정초부터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수백개의 예비채탄장이 마련되고 수백만t의 확보탄량이 조성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한 석탄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굴진을 앞세워 더 많은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속도굴진력량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탄광들에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인 기본굴진실적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전화의 나날 군자리로 동계급이 발휘한 그 정신으로 굴진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서부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높이 7월까지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막장마다에서 진격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굴진공들을 불러일으켜 기업소안의 모든 고속도굴진, 굴진소대들에서 상반년과 7월 굴진계획을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굴진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형봉탄광 대성갱에 덩지큰 채탄구역이 형성된데 맞게 석탄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남양탄광에서는 고속도굴진소대비중을 종전에 비해 5% 높임으로써 뚜렷한 굴진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천성청년탄광 버럭운반용삭도공사를 비롯한 탄광들에서 버럭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도록 청년돌격대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지난 7월 25일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였던 5사갱구역이 관통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끝내고 련합기업소탄광들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선진과학기술을 굴진작업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탄광들의 주요전망굴진대상 공사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적인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각지 탄광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마구리당 굴진실적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남덕탄광 김영민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선진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착암수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탄광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갱도굴진작업을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7월까지의 기간에 계획보다 585m를 더 굴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7월까지의 기간에 계획보다 356m를 더 굴진한 남양탄광 김철수고속도굴진소대와 상반년 굴진계획을 200%이상 수행한 룡산탄광 안재건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원쑤의 아성을 향하여 진격하는 심정으로 천연암벽을 힘있게 열어가고있다.

단마구리굴진에서는 천성청년탄광 최순일고속도굴진소대가 지난 7월 101m라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2.8직동청년탄광 류철남고속도굴진소대, 령대탄광 손성호고속도굴진소대에서 80m이상을 돌파함으로써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격의 앞장에 서고있다.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각지 탄광 청년돌격대원들이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심정으로 증산돌격의 함성드높이 련일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총진군의 불길높이 년간계획 넘쳐 수행

청진강재공장에서

원쑤격멸의 기상 차넘치는 청진강재공장에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 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종전보다 각강가열시간을 줄임으로써 8월 20일까지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년초부터 철강재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강가열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시기 버리던 열을 다시 회수리용할수 있는 열순환식련속가열로를 철강재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설계를 앞세우면서 열순환식련속가열로를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풀어나가며 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책임기사 리호진동무를 비롯한 공장기술집단은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의 련계밑에 열순환식련속가열로를 석달동안에 일떠세움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철강재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서 큰 몫을 내도록 하였다.

유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새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매일 각강생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공무작업반원들은 설비들에 정통하고 그 어떤 소재도 가공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창안하여 육중한 압연롤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공장에서는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4개월이나 앞당겨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남조선괴뢰군부깡패놈들을 유도로의 쇠물속에 처넣는 심정으로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온성갱목생산사업소에서

온성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 통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통발나무생산을 집중적으로, 련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순환구역, 채벌구에 따르는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여 년간 통발나무생산계획의 70~75%를 겨울철기간에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수십km에 달하는 자동차길과 소발구길, 통쏘이길을 보수 및 건설하고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놓았다. 기계톱, 쇠바줄, 각종 공구확보와 함께 산지에서 일하는 통발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함숙도 잘 꾸려놓았다.

작업소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눈덮인 산판에 올라 로동자들에게 겨울철통발나무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통발나무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통발나무생산이자 석탄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사업소아래 종성, 동포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사이나르기에 소발구와 통쏘이를 적극 배합하여 겨울철에 계획보다 많은 량의 통발나무를 생산하였다.

일군들은 운전사들과 수송길을 함께 달리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의 마지막공정인 마감나르기에서도 높은 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종성, 동포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상하차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나무러들에서 륜전기재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임으로써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사업소의 설비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무부문의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운수수단의 수리정비를 잘하여 년간 통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조국이여, 우리를 화선병사로 불러달라. 한손에는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을 씨종자도 없이 짓뭉개버리자!

과일수확이 한창인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증오와 분노의 활화산이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각지 과수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철의 신념과 억척의 맹세는 그대로 높은 과일수확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은 날로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원쑤의 아성을 송두리채 쓸어버릴 멸적의 기세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일수확을 다그치고있다.

전쟁광신자들의 목을 잘라 남해바다에 처넣자!

어느 포전에서나 분노와 복수의 고함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있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손에 총을 튼튼히 틀어잡고 도발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깡그리 소탕해버릴 기세로 과일수확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이 그대로 과일수확실적으로 이어져 매일 계획을 150%이상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전투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다.

미친개를 당장 때려잡자고 욱욱 벼르며 매일 과일수확과제를 130%로 넘쳐 수행하고있는 철산과수농장의 근로자들도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을 박살낼 심정으로 과일수확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천추에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군부호전광들의 소굴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로 과일수확에서 매일, 매 시각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 단위들의 근로자들만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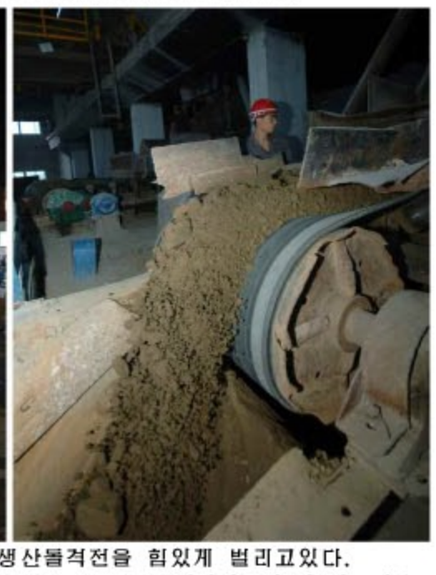
장연과수농장에서도 복수와 분노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원쑤들이 그 어디에 숨어있든지 끝까지 찾아내여 무조건 격멸소탕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그대로 과일수확전투장에 비끼고있다. 멸적의 기상안양 뜨락또르를 힘차게 몰아가는 운전수들도, 과일을 운반하고있는 근로자들도 원쑤들을 단숨에 때려잡을 심정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과일을 수확한 기세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은 황주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들은 끝없이 솟구치는 격분에 치를 떨며 영농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하는것으로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릴 결의에 충만된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있다. 보복의 일념이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속에 22일 하루동안에만도 수십t의 과일을 수확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온천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과수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과일수확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상농광산에서 —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빛내이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3월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4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5월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2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8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7월

인민군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11월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10월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2월

명포수들로 자라난 용도방어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7월

승리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전통이다

백승의 선군령도사에 새겨진 충격적인 사변들을 돌이켜보며

온 나라가 원쑤격멸의 의지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감히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을 해대는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열의로 피를 끓이고있다. 청년학생들이 너도나도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있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한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의 동음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넘쳐나는것은 무엇인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지나온 력사는 승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참패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는것, 이 법칙과도 같은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할것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모시여 승리는 대를 이어 떨쳐지고 8.25는 영원한 조선의 명절로 빛나고있음을 백승의 선군령도사에 새겨진 충격적인 사변들이 생동히 말해준다.

첫 대결—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야외전시장에 끌려와 침략의 산증거물로 되여 닻을 내린 《푸에블로》호는 우리 후대들에게 파연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나타난것은 주체57(1968)년 1월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배가 도주하거나 저항할수 있는 경우를 예견하여 나포전투를 빈틈없이 조직할데 대한 비범한 작전적명안을 밝혀주시였다.

즉시 나포하라! 명령을 받은 함선들과 어뢰정들이 간첩선을 향해 무섭게 돌입하고 비행기가 출동하였다. 우리의 일당백해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의 저항을 제압함과 동시에 단호한 행동으로 적의 함선에 뛰여올라 적들을 포로하였다.

세계가 법석 끓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있었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멸적의 총성을 들으며 성장하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령장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어나가신 20대 청년장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천출위인상에 대하여.

그무렵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결심채택을 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 저는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나포한 미제무장간첩선을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결국 미제는 《푸에블로》호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1개월만에 저들의 행위를 사과하는 동시에 다시는 우리의 령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는 사죄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이어 미제에게 다시한번 참패를 안기고 두번째 항복서를 받아냈다고 한결같이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두번째 항복서가 선군길에 나서신 조선의 20대 청년장군께서 미제와의 대결에서 받아내신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있었다.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 격추작전도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실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이 안아온것이다.

주체58(1969)년 4월 15일 미제침략자들은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우리 령공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게 하였다. 만단의 출격태세에 있던 우리의 비행사들은 즉시에 리륙하여 결정적인 타격으로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를 공중에서 박산내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간첩비행기가 공해상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다가 격추당하였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복》하기 위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살아서 항복서라도 쓸수 있었지만 이번에 무분별하게 달려들면 불을 즐기는 부나비의 신세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인민의 철저한 반미의지앞에 적들은 기가 꺾이고말았다. 결국 무력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서방의 언론들이 야유하였듯이 존슨의 뒤를 이어 조선침략의 항로에 들어서서 첫걸음을 내짚던 닉슨은 그 초입에서 20대 청년장군의 강타를 당한채 셈세기에 들어가게 되였다.

1960년대초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과 바다에서 벌리신 미제와의 첫 대결은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였다.

령장의 배짱과 담력의 시위

관문점, 평화와 안정이 깃들새 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첨예하게 맞서고있는 최대의 열점지대인것으로 하여 이곳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주체65(1976)년에 일어난 판문점사건은 그 대표적사건이다.

미제는 8월 18일 도끼를 가진 불한당들을 내몰아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나무를 제멋대로 찍어내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지어 놈들은 우리측 경무원들이 그러한 비법행위를 그만둘것을 경고하자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수십명의 불한당들까지 내몰았다. 우리 경무원들은 무쇠주먹으로 달려드는 놈마다 강타를 먹였다. 그 기상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놈들은 줄지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있는 우리측 경무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구호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판문점 경무성원들을 표창해야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며칠후 평양에서는 판문점에서 위훈을 세운 전투원들에 대한 표창수여식이 성대히 열리였다. 거의 같은 시각 워싱톤에서는 미군부와 미국무성의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즉사한 두명의 미군장교를 추모하는 장송곡이 울리였다.

또 한번 꼴을 먹고 악에 받쳐 욱욱거리던 놈들은 대응책을 모의하던 끝에 침략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곧 실천행동에로 넘어갔다. 세계여론까지도 《이번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하였다.

긴장한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 놀랄것은 없다고, 요즘 적들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전쟁소동은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놈들의 취약성을 보여줄따름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만약 놈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놈들을 일격에 쳐물리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은 곧 선군조선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이 세상 천지풍파가 밀려온대도 드놀지 않는 천출명장의 이런 담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적들이 긴장한 정세를 조성해놓고있던 그처럼 준엄한 시각에도 인민군군인들이 주요대상건설에 동원되고 군인휴양소들에서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팀 스피리트》와의 대결

1980년대에 들어와 조미대결전은 적들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1976년부터 벌려온 군사연습은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였다.

하지만 백두산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변만화한 지략과 비범한 예지에 의해 적들은 매번 쓰디쓴 참패를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력사의 페지들에 통쾌하게 기록된 1983년과 1993년 적들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어떻게 패배로 막을 내렸는가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팀 스피리트 83》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한 2월 1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참석하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적들은 이 군사연습도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미제는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이루어볼 심산으로 핵전쟁수단까지 동원하였으며 동맹국장성들과 여러 나라 기자들을 《참관단》으로 초청까지 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선포하겠는가 하는것이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바로 오늘 2월 1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지난번에는 적들의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불의의 타격을 들이댔다면 이번에는 훈련시작초기에 짓부셔버리시려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번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자신께서도 그 방안을 찬성한다고 긍정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그 반응은 즉시에 일어났다.

침략자들이 구름처럼 밀려드는 그 시각 평양대극장의 불빛밝은 무대에서는 음악무용이야기 시연회가 진행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신문, 통신, 방송들이 미제의 음흉한 도발행위의 진상을 까밝히는 집중포화를 들이대였으며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할것을 탄원해나섰다.

결국 북조선의 반응여하에 따라 즉시 전격적인 군사적공세를 개시하려던 미제의 침략계획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앞에서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항공모함에서 리륙했던 비행기가 착륙한다는것이 갑판을 들이받는가 하면 땅크들은 잠수훈련이라도 하듯 얼음덮인 늪에 통채로 빠져들기도 하였다. 당시 적들의 혼란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훈련시작 첫 며칠동안에 낸 사고가 전기간 사고의 50%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제가 벌리는 합동군사연습과정을 류다른 관심속에 주시해온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미국이 아무리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북조선에 전쟁의 불벼락을 안기려고 해도 이북에는 그것을 막을수 있는 위력한 피뢰침이 있다. 그 피뢰침은 김정일령수님의 천하무적의 담력과 천변만화하는 지략이다. 이것을 모르면 미국은 패일이 없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 무적필승의 기질은 주체82(1993)년 지구를 뒤흔든 또 한차례의 사변으로 하여 절정을 이루었다.

그해에 미제는 《림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재개하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면서 군사적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이였다.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의 평화적인 핵활동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는가 하면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신비한 전법으로 세계를 놀래우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한다. …》

실로 이 사변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 《유일초대국》과 맞서 자기의 존엄을 세상에 떨친 가슴벅찬 승리의 패거였으며 온 세계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담력과 배짱, 예지와 지략의 경지가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깨닫게 된 력사적인 계기였다.

사라진 요격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주체98(2009)년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요격하겠다고 무분별하게 날뛰던 적들을 통쾌하게 답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오늘도 력사의 페지에 빛나고있다.

그해 2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오바마가 와뜰 놀란것은 물론이였다.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는줄도 모르고 위성요격설을 떠들며 군사적총공세를 명령했다.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는 격으로 괴뢰역적패당 역시 괴뢰군무력을 경계태세에 진입시킨데 이어 일본반동들도 각종 요격수단들을 조선동해수역에 대기시켰다.

바로 이러한 때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고 포사격훈련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면 그것을 요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즉시적인 대응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적들이 감히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한다면 적들을 무자비하게 보복하여 버릇을 뜨끔놓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배짱이시였다.

멸적의 보복타격준비가 실동으로 넘어갔다. 우리의 위력한 포와 미싸일들이 바다우에 떠있는 적함선집단들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조준경안에 넣었다. 전투함선들은 선수에 폭약을 장전하고 바다를 누볐다.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더 실은 비행기들이 욱탄돌입할 기세로 하늘을 쌜었다.

우리의 파감한 군사적대응에 기겁한 적들은 요격할 의사가 없다고 황황히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고말았다.

4월 5일 드디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에로 날아올랐다.

이번에도 역시 성공이였다.

그날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몸소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해주시면서 적들의 방해책동과 대결하던 일들을 통쾌하게 추억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제재니, 요격이니 하면서 발광하였지만 우리가 강경하게 나오니 어쩌지 못하였다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는 우리의 강대한 힘에 대한 자부가 비껴흐르고있었다.

실지로 적들은 우리의 경고에 위압되여 움찍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공포에 질려 희비극을 연출했을뿐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조선의 위성발사가 무난히 단행된것은 놀라운 사실. 미, 일, 남조선이 협력해 천층만겹으로 구축해놓았다는 위성요격장벽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의미심장한 의혹을 시사하였다.

우리의 성공적인 위성발사에 세계가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빛나는 정치적승리로 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벌써 정치적리득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격찬하였다.

이것은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의 명줄을 쥐고 마음대로 다불러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이였다.

이전 쏘련의 국방상이였던 야조브원수가 한 말이 있다.

《한생 군인으로 복무해온 나의 체험으로 확언하건대 21세기를 대표할만 한 명장은 김정일장군, 오직 그 한분뿐이시다. 김정일장군이시야말로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기는 백전백승의 명장,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장군님 펼치신 선군이 있었기에 우리는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흘러온 력사는 승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참패는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원쑤들과의 판가리결전을 다짐하여 복수의 총창을 억세게 비껴든 이 시각 천만군민은 우리 장군님 떨쳐오신 선군승리의 위대한 력사를 최후승리에로 이어놓을 불같은 결의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신 선군의 전통은 영원히 계승될것이며 우리의 선군절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며 력사의 한페지를 금문자로 장식할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백두산총대는 서리발친다

백두산총대가 멸적의 서리발을 번뜩이고있다.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증오와 복수의 열기로 가슴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총창을 비껴들고 전호가에 선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군인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멸적의 기상이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결전의 시각을 앞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주체102(2013)년 3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인민군군인들의 가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 멸적의 기상이 차넘쳤다.

그 전해에도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시고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무적필승의 담력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백두산장군의 기상을 두고 온 나라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숨에 달려가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드디여 그 시각이 닥쳐왔다. 피에 주린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간 다지고다져온 증오와 복수, 멸적의 의지를 만장약시킨 백두산총대를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오늘 인민군대가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무적필승의 강국이 바로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지난 수십년간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무리들을 단호히,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이것이 원쑤격멸의 의지 서리발치는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선군조선의 천만군민의 결사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측 지역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가 발생하였다.

주먹을 불끈 틀어쥔 남녀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서고있다. 적들의 분별없는 망동에 천만군민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적들은 선군조선을 너무도 모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는 자랑찬 력사만을 이 땅우에 아로새겨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승리의 력사를 되새겨보는 우리의 긍지드높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무자비한 타격력으로 《초대국》이요, 《핵무기만능론》이요 하면서 으시대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기를 꺾어놓고 련전련승하시였다.

주체83(1994)년말, 우리 령공에 침입한 미제침략군직승기가 평범한 한 인민군군인의 무기에 단방에 맞아 격추되였을 때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이번에 미제침략자들에게 우리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원쑤들이 우리 조국강토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가차없이 쳐부셔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강경하고 단호한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군대의 전통이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또 용서란 있을수 없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적들에게는 사소한 판용과 타협도 있을수 없으며 그가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대하여서는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하신 기질이였다.

언제인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던 적들은 연습의 절정이 우리 공화국의 어느 한 지점에 그 무슨 전선을 형성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륙전대투하훈련을 예견하고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놈들이 《참관단》까지 초청해다놓고 륙전대투하훈련에서 군사연습의 절정을 장식하려고 하는것만큼 이에 대처하는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라고 하시면서 대응훈련을 진행할 지점을 하나하나 찍어주시였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찍어주신 지점에 날새 한마리 새여나가지 못하게 무자비한 화력타격을 들이댔다.

이 무자비한 타격훈련과정을 간첩위성을 통하여 몇장면 촬영한 적들은 자기들이 가상했던 지점과 우리가 대응훈련을 한 지점이 신통히도 일치하며 그 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것을 알고 비명을 질렀다.

《참관단》성원으로 갔던 외국의 한 무관의 인상담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였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놈들에게 안기려던 무자비한 타격이였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미국의 한 우두머리는 미군사계통 연구소들의 종합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특징을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판단이 정확하고 둘째는 결심이 단호하며 셋째는 타격이 무자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하여 내린 이 평가,

그것은 적들이 제아무리 《첨단무기》, 《우주무기》를 떠들며 어쩌구저쩌구해도 위대한 장군님앞에서는 법앞의 하루강아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며 배심든든하게 세상에 소리치며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걸어올수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천만군민의 승리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진두에 계신다.

천만장병들이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자비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원쑤들을 어찌 한놈이라도 살려둘수 있으랴.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은 도발자들에게 가차없는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우리 식의 보복타격이 어떤것인가를 몸서리치도록 보여주고야말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철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남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으며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보천보혁명전적지, 청봉숙영지, 삼지연못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력사의 땅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들어선 그들은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전법과 지략을 깊이 체득하였다.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등관을 거쳐 리명수혁명사적지,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사령부자리, 우등불자리를 비롯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삼지연대기념비와 삼지연못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면서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뜨겁게 절감하였다.

오늘도 절세위인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전설처럼 전하고있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한 그들은 행군을 다 그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정에서 그들은 천지의 장쾌한 전경과 아득히 펼쳐진 밀림을 바라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자들은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린시절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앞에서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이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있었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열혈의 녀성혁명가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고향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시대 녀성들의 본분을 다해갈 맹세를 다지였다.

답사기간 그들은 문답식학습경연, 체육경기, 오락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원쑤격멸의 의지,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전선지대가 세차게 끓어번진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들에서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본사편집국에서는 전선지대에 종군기자들을 급파하였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지대의 지역들에 파견된 본사종군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전한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집중포화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신성한 우리 령토에 감히 선불질을 한 특대형도발자들, 전쟁히스테리들에게 무자비한 백두산총대세례를 안길 최후의 결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준전시체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전달받은 즉시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수령보위,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침략의 무리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시, 군기동예술선동대들에서 최후결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전시가요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술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을 전투적으로 벌리고있다.

결과 며칠사이에 분계연선지대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도적으로 수십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950년대에 발휘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속에서도 전시식량을 보장한 전승세대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본받아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로력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공세적으로 진행되였다.

평산군과 상원군의 녀성농업근로자들이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준 전세대 녀성농민들처럼 살며 투쟁할 불같은 애국의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불길은 삽시에 온 도에 타번져 도적으로 5만 8천여명의 녀성농업근로자들이 알곡증산을 위한 당면한 영농전투의 앞장에 설것을 결의해나섰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는 한 싸우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최후승리를 안아올 드높은 기개를 안고 떨쳐나선 근로자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갔다. 그 과정에 은파광산에서는 선광처리실적을 1.5배로,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취수구벽체타입속도를 2배로 높이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성과가 높아질수록 전투현장마다에서 부나비마냥 제 죽을줄 모르고 미쳐날뛰는 적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정치사업을 계속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온 도안에 이런 심장의 웨침이 높이 울려나오는 속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후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즉시 도안의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적들의 도발을 주동적으로 처갈길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긴급협의회를 열고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지대에 위치하고있는 군들의 당조직들이 우선 주체적인 전쟁관점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이 군대와 한전호에서 결사항전을 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직접 분계연선지대의 군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동원준비상태를 료해하고 준전시체제에 맞게 모든 사업을 격동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현재 분계연선군들인 김화, 평강, 철원, 고성, 금강군에서는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해당 단위들의 필요한 조직사업에 따라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분계연선지대의 당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온 도를 준전시체제로 전환시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안의 모든 단위들이 준전시체제로 전환되는데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시, 군(련합기업소)당조직들이 생산현장과 기대, 포전, 소개지들에 당의 구호를 게시하고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쑤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드높은 신념과 의지를 새겨주고있다.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전시가요와 방송선전차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빨찌산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대와 한전호에 서서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여기도 불꽃튀는 최전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불타는 적개심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하고 떨쳐나선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은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놈들이 보란듯이 세포등관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후 이틀동안에 그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여동이나 더 많은 대상건설을 완공하는 전투성과를 이룩하였다.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 바라보이는 세포등판에서 창조되고있는 전투성과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건설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후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은 건설자들모두가 필승의 신심을 안고 대자연개조전투의 포성을 더 힘차게 울리며 원쑤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폐기있게 벌려나갔다.

성, 중앙기관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원쑤의 아성을 향해 돌진하듯이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내달리며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수매량정성, 인민봉사총국, 림업성, 륙해운성, 상업성, 경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돌격대들이 앞장에 섰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며 맡은 대상건설에서 종전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원쑤놈들의 침략전쟁광기가 극도에 이른 지금의 1분1초를 이전의 열흘맞잡이로 여기고 대상건설에서 질과 속도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기 위한 줄기찬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각 도려단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적진이 지척에 있는 분계연선지대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할 의지를 자랑찬 건설성과로 힘있게 과시해나갔다.

적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사회주의건설대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 열의로 가슴끓이며 단숨에의 기상을 떨쳐온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21일에 이미전부터 진행해오던 30동의 대상건설을 완공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가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전지는 금성철벽이라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수십동의 대상을 완공하였다.

평강군의 고기가공공장과 사료가공공장건설장에서 백병전을 방불케 하는 건설전투가 벌어졌다.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원쑤격멸의 의지로 가슴의 피를 펄펄 끓이며 건물벽체쌓기를 비롯한 공정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수행해나갔다.

이들은 만일 적들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이전보다 더 높은 건설실적을 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호전광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기세로

장풍군의 풀베기전투장들에서

남조선괴뢰군부패당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조건에 맞게 장풍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풀베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히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선불질을 한 남조선괴뢰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멸적의 의지를 안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군의 모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손에는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목을 베는 심정으로 당면한 풀베기전투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에 힘을 넣고있다. 방송선전차들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전하며 풀베기전투장들에 멸적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어느 농장, 어느 풀베기전투장이라 할것없이 원쑤격멸의 의지가 차넘치고있다.

세골, 가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준전시상태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며 풀베기를 다그치고있다.

석촌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풀거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첫날부터 매일 풀거름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국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도발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안고 풀거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은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던 1950년대 농민들이 지니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면한 풀거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대덕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사랑하는 촌토를 피로써 지켜낼 애국의 마음안고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여 거름더미를 높이높이 쌓아가고있다.

제2작업반 윤상로, 제3작업반 리춘식, 제7작업반 김향란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청년들은 기어이 원쑤놈들이 불질한다면 멸적의 총창을 비껴들고 남조선군부깡패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복수의 피를 끓이며 풀베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1950년대의 그 정신으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사리원방직공장에서 —

보복성전의 앞장에 우리를 세워달라

전선지대 청년학생들과 근로청년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지키는것은 청년들의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적개심을 총폭발시켜 최후승리를 이룩할 멸적의 의지안고 황해북도의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학생 10여만명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들고 심장의 피를 끓이던 황해북도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22일 사리원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심장은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에 감히 선불질을 해댄 남조선괴뢰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길 맹세로 불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내용이 전달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이어 도의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학생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펜을 복수의 총창으로 바꾸어들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설것을 맹세하는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열의로 온 광장은 세차게 끓어번졌다.

그들은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서로서로 달려나와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탄원서에 서명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과 황북종합대학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대학, 전문학교의 청년학생들은 전화의 영웅들처럼 한목숨바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불타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사리원시 동리고급중학교와 구천고급중학교를 비롯한 모든 고급중학교학생들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과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고 노래하며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한몸 서슴없이 바친 월미도의 영웅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수하는 제일결사대, 총폭탄이 될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대렬을 지어 전시가요를 부르며 사리원시를 행진하였다.

* *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원도의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조국수호정신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2일 현재 도의 7만 4천여명 청년학생들과 근로청년들이 천백배 복수를 다짐하며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들은 결전의 시각이 닥쳐오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보위성전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제낄 열의에 넘쳐있다.

복대를 탄원한 도청년동맹일군인 김영학은 신성한 우리 령토에 감히 포탄을 란사한 괴뢰군부깡패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하루강아지범 무서운줄 모르며 미쳐날뛰는 불망종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총대맛을 보여주겠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평강군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홍봉렬을 비롯하여 군의 수천명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심정도 다를바 없다. 철원, 김화군을 비롯한 전선지대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은 복수의 총을 틀어잡고 이번 기회에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고야 말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괴뢰군부깡패무리들의 망동에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제대군인대학생인 조군실원산공업대학 박영선을 비롯하여 대학의 650여명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원산의학대학, 원산수산대학을 비롯하여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에서도 련이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탄원모임이 진행되였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문천강철공장, 원산구두공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수많은 근로청년들도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을 총대로 쓸어버리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길 불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본사종군보도반
(현지에서 전송)

— 조군실원산공업대학에서 —

원쑤의 아성에 보복의 불소나기를!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은 지금 다시없을 이 절호의 기회를 최후승리에로 이어갈 불같은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미제에게 빌붙어 애걸복걸하며 생존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쩌보려는 괴뢰군부깡패들의 꼴이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공화국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길것이다.

우리에게는 천하대적도 발밑으로 굽어보시는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는 무적의 총폭탄정신과 강위력한 타격수단을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으며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있다.

이런 군대와 인민을 정복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우리 룡성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는 맨손으로 피대를 돌려 무기를 생산한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만약 놈들이 쓰디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분출되는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가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것이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 지휘관 리수열

씨종자도 없이 모조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서는 미제의 특등주구들인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가 엄숙히 천명되였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신성한 내 조국땅에 감히 불질을 해댔다니 이것이야말로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하루강아지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무분별한 자멸의 짓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잔명을 유지해오던 괴뢰패당이 제 죽을 날이 가까와오니까 살아보겠다고 무모한 도발에 매여달리는것이 분명하다.

이제 더이상 참고있을수가 없다. 역적패당과 총결산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 하루강아지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쏘아잡는 탄알을 생산하는 심정으로 영농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농사를 잘지어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놈들이 보란듯이 쌓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잘사는가를 두고두고 보게 하겠다.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백언

선군의 무쇠주먹으로 단매에

천만군민의 멸적의 보복의지가 세차게 분출하고있는 이 시각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정신과 육체를 강철로 다진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도 괴뢰역적패당을 단숨에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가 서리발치고있다.

동족대결에 미쳐 함부로 날치는 좀벌레같은 괴뢰역적패당을 선군의 무쇠주먹으로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이제는 놈들과 말로 할 때는 지났다. 남은것은 오직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적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것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사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으로서 너무도 당연하다.

가소롭게도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선불질을 한 전쟁미치광이들에게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정의의 타격, 사정없는 불벼락을 들씌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든 우리 체육인들은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을 위하여 전면대결전에 용약 떨쳐나설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억척같이 다진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선군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평양체육단 축구선수 서대성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

남조선팀을 타승, 준결승경기에 진출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팀이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 조별련맹전 마지막날 경기에서 남조선팀을 타승하고 준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지난 18일부터 중국의 남경에서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우즈베끼스딴,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8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각 팀들은 두개 조로 나뉘여 련맹전을 진행하였다.

2조에 속한 우리 나라 팀은 타이, 이란, 남조선팀과 경기를 하였다.

조별련맹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불의적인 역습과 철통같은 방어 등으로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진행함으로써 19일 타이팀을 5:0으로, 21일 이란팀을 9: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23일 남조선팀과 대전하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남조선팀과의 마지막날 경기에 나선 우리 팀 선수들은 백두의 혼련열풍을 일으키며 다져온 높은 정신력과 완강한 투지, 빨찌산공격전법으로 경기를 잘 운영해나갔다.

우리 팀이 경기 전기간 철통방어와 부단한 공격으로 상대팀을 크게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리향심선수가 경기시간 62분경 방어진을 허물고 통쾌한 득점을 하였다.

결국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1:0으로 남조선팀을 타승하였다.

우리 나라 팀은 26일 1조에서 2위를 한 중국팀과 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력사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기록하게 될것이다

(시) 분노의 분화구를 터치자

최 남 순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이제 더는 용서할수 없다
백두산이 노성을 터쳤다
조국이여
무자비한 보복의 분화구를 터치자

우리의 아량에
악랄한 도발로 칼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쑤들이 쏘아댄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푼
우리 가슴팍을 향한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눈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치려 한것이다

비렬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뭉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쇠철갑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표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녀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끌게 호소한다

분노와 증오와 복수로 달아오른
천만의 심장과 심장들이 그대로 폭탄인줄
가련한 원쑤들이 어찌 알랴
그래서 반드시 이기리라는것을
치졸한 원쑤들이 그 어찌 알랴

이제는 상처남길 자리조차 없는
70년 분렬사에 응어리진 고통을
오로지 멸적의 포신으로 쏟자
그 아픔의 세월들을 불줄기로 쏟자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픈
민족의 목숨같은 념원을 후련하게 풀자

우리 아이들의 웃음비낀
육아원과 애육원의 밝은 창가를 위해
미래과학자거리의 행복한 입사식을 위해
10월의 성대한 열병식을 위해
조국이여, 최후승리를 위해 다져온
막강한 국력을 백두의 활화산으로 터치자

위대한 김정은장군 만세!
목청껏 웨칠 통일광장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만대의 번영을 위해
일심단결된 인민이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자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시) 결전의 시각은 왔다!

황 명 성

절컥!
분노의 격발기를 당기며
이 가슴 후련히 퍼붓고야말
멸적의 탄알을 만장탄하고
병사는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우리의 둘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찌를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
미제를 등에 업고 날뛰는 괴뢰역적들
네놈들의 도발은
전쟁을 불사한 선전포고

못 참아
이제 더는 못 참아
긴긴 세월 참고참아온
복수의 응어리를 용암처럼 터치며
원쑤격멸의 성전에 우리 나섰다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
성스러운 50년대 전화의 용사들이
공화국기 펄펄 날리며
남진의 길 노도쳐 달려갔듯이
폭풍쳐가리라 최후성전의 길로

최고사령관동지 그어주신
승리의 붉은 화살표따라
태백의 준령들을 날아넘어 대전으로
락동강의 불모래를 군화밑에 밟으며 부산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악마의 무리들을
씨종자도 없이 격멸소탕하리라

위력한 선군의 총대앞에
더는 숨어 피할길 없는 역적의 족속들
더는 살아숨쉴 곳 없는 반역의 패당들
멋모르고 선불질한 망동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오늘에 결산하리라, 죽음을 주리라

오, 나는 통일의 열병광장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릴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병사
꺼꾸러진 적들의 아성을 군화발로 딛고
결전의 포연 걷히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원쑤의 종말을 소리높이 선언하리라!

(시) 불 벼 락 터 치 자

김 남 호

이 땅의 거센 맥동

꿈에도 통일을 원하며
겨레의 숙원을 목메여 부르던 이 땅이
더는 참을길 없는
분노의 장검을 뽑아든것이다

불을 뿜는 대지!
노도치는 징벌의 대하!
이제 더 원쑤를 살려둔채
새날을 맞을수 없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수 없나니

들붓자
무자비한 섬멸의 포화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원쑤의 머리우에 불벼락 터치자
죄악의 둥지를 뿌리채 뒤엎자

오, 백두산대국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이 계시여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백승의 기치따라 돌진하는 앞길에
통일삼천리가 달려온다
파도쳐 달려온다

(시) 승리로 보여주리라

신 문 경

아마도
이미 터졌더라면
열백번도 끝장이 나고말았을
가증스런 원쑤들아
너무도 길었던 분렬의 고통아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개무리들
네놈들스스로 몰아온
멸망의 이 시각
우리에겐
승리를 눈앞에 둔 귀중한 이 순간

분노한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을!

그렇다
저 분계선너머에서 씨글거리는
반역의 마지막쓰레기들을
깨끗이 쳐갈겨야만 통일이 온다
민족만대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다

정의가 바로 이 총창우에 있다
평화가 바로 틀어쥔 총대우에 있다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의 축포는
최고사령부의 신호총성에서 터져오르리라!

싸우리라 용감하게
싸우리라 무자비하게
조국의 운명을 걸고
선군조선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승리로 보여주리라!
조국통일이 어떻게 오는가를
민족의 존엄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수호되는가를

(시) 8월의 최전방

리 창 식

불벼락이 쏟아질
전방의 참호에서만
멸적의 포신들을 찾지 말라
분노로 떠는 나의 착암기
최전방이여, 네우에 세운 또 한문의 대포다

8월의 불번개가 친
최고사령부의 밤
나의 심장은 탄전에만 있지 않았다
최후성전을 다짐하는 전선용사들과 함께
강철의 령장
그이의 명령앞에 서있었나니

천길막장의 탄벽을 뚫으며
무섭게 치떠는 나의 착암기여
너의 달아오른 정머리로
분렬의 고통 휘감긴 콩크리트장벽을
단숨에 맞장내라!
서울의 하늘에 맞구멍내여
무서운 불소나기를 들부으라!

분노한 8월의 하늘아래
전후방이 따로 있으랴
이 시각
불기둥처럼 치솟는 만년언제들이
불물이 끓어번지는 철의 용해장이
총알같은 이삭들이 여물어가는 전야가
병사들의 일선전호에 그대로 이어져있나니

간담이 서늘토록 원쑤들에게 보여주자
후안무치한 거짓과
비렬한 도발을 일삼는 놈들에게
통쾌하게 보여주자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적과 창조도
무자비한 철추이며 또 하나의 승리임을!

오, 전시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전호에만 있다고 생각지 말라
원수님의 명령에
불이 되고 폭탄이 되여 나선
이 나라 근로인민모두가
최후성전의 최전방에 있어라

사태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간 무장도발

지금 군사분계선일대에는 위기일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몰아온 도발의 장본인은 남조선괴뢰들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한 후 괴뢰들은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지난 20일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아군민경초소들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날리는 무장도발행위까지 감행해나섰다.

괴뢰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망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신성한 공화국령토를 노린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며 북침전쟁개시를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문제는 괴뢰들이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도발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긴장격화의 책임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허위는 진실을 이길수 없으며 도발자로서의 괴뢰들의 추악한 정체는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저들의 범죄적목적에 악용하는것은 괴뢰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세계전쟁사에는 침략자들이 승냥이본성을 가리우기 위해 양가죽을 쓰고 피해자처럼 둔갑해나섰던 실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처럼 외세의 침략책동의 돌격대가 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해 그 무슨짓도 가리지 않는 모략과 날조의 능수, 희세의 대결미치광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이 우리와 련관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괴뢰들은 한주일만에 립장을 바꾸고 다짜고짜 《북소행》설을 광고해나섰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북소행》설을 립증하는 동화상은 내놓지도 못하고 《물적증거》라고 하면서 들고나온것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것으로서 여론의 조소와 비난만 자아냈다.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괴뢰군부깡패들이 북에서 날아왔다는 포탄이 고사포탄인지, 로케트탄인지, 직사포탄인지 똑똑히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그것의 발사지점과 락탄지점도 확인하지 못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현지주민들도 북에서 포탄이 날아오는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괴뢰들이 떠들어대는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여론들은 괴뢰들의 도발소동이 몇해전 조선서해에서 발생했던 《천안》호사건, 연평도사건과 류사하다는데 대해 주목하고있다.

2010년 3월 《천안》호사건을 조작한 남조선괴뢰들은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북어뢰공격》에 대해 떠들며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둘러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대결조치를 공포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연평도에서 우리의 령해에 함부로 포탄을 날리며 도발소동에 미쳐날뛰다가 응당한 징벌세례를 받았다.

남조선괴뢰들이 모략적인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하고 있지도 않은 《북포탄발사》에 대해 떠들며 아군민경초소들에 포사격을 가한것은 《천안》호사건때 써먹던 도발수법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8월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하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였다.

겨레의 드높은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8.15를 계기로 해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대한 민족통일대회가 열리였다. 괴뢰들이 떠드는 《지뢰폭발》사건이니, 《포탄발사》니 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한 도발만행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대결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에게나 필요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때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이번의 엄중한 포사격도발을 발생시킨 근본원인이다.

괴뢰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떠들어대면서도 실지로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왔다. 최근의 몇가지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올해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그 누구의 《붕괴》를 떠들어대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화하자 남조선괴뢰들은 그에 적극 편승해나섰다.

괴뢰들이 벌려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놀음과 인간쓰레기들을 부추겨 미친듯이 감행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피하면서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피를 묻고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의 흉악한 몰골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떤 《방어적목적》의 연습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다. 이 전쟁연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나고 이어 연습이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 시기에 《북포탄발사》사건이 터졌다.

괴뢰들의 엄중한 반공화국도발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겹친것은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다. 우리에게 도발을 걸고 사태를 악화시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면전쟁으로 전환시키려는것이 괴뢰패당의 악랄한 술책이다.

우리를 겨냥한 무장도발의 강행이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리 짜놓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련합작전체제를 가동시키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러나 괴뢰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에 광분하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을 천백배로 폭발시키고있다.

도발자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징벌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이제 당장이라도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야말려는것이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망동

지금 온 세계가 조선반도정세를 심각한 우려와 불안속에 주시하는 속에 사태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에로 치닫고있다. 군사적도발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괴뢰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이 바로 그 원인이다.

치마두른 호전광 괴뢰집권자부터가 전쟁풍구질에 여념이 없다. 지난 21일 전선서부지역에 도사린 괴뢰제3야전군사령부에 나타난 박근혜는 《현황보고를 청취》한다,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하면서 그 무슨 《단호한 대응원칙》을 광고하려고 모지름을 썼다.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도 술먹은 개처럼 정신없이 날치고있다.

21일 이자는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데서 저들의 심리모략방송을 《북의 지뢰도발》에 따른 《응당한 조치》로 변명하면서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느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느니 하고 호전적폭언을 마구 줴치였다. 역도는 이날 전군지휘관화상회의라는것도 열고 《굳은 결기》니 뭐니 하며 졸개들앞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객기를 부리였다. 전쟁의 불찌를 마구 날리는 괴뢰패당의 이 위험천만한 망동을 단순히 제처치도 모르고 헤덤비는 리성잃은 호전광들의 무모한 허장성세로만 볼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괴뢰호전광들의 광란은 이미 짜놓은 전쟁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연출이다. 그것은 저들이 조작한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을 내외에 적극 여론화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대결국면을 더욱 첨예화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다.

지금 괴뢰들의 대결정신병은 완전히 말기상태에 이르렀다. 모든 행정기관을 비상근무체제에로 전환시킨것도 그렇고 괴뢰군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고 정보원, 경찰 등 파쑈폭압기구들의 경계강화조치를 남조선전역으로 확대한것 등은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히스테리적망동이다. 지어 괴뢰패당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가동시키면서 북남사이의 무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제침략군을 끌어들여 사태를 순식간에 전면전쟁에로 확대할 흉계까지 꾸미고있다.

이러한 속에 괴뢰집권자와 그 수하졸개들이 련일 《응징》을 부르짖으며 저저마다 사태악화를 부채질하는것을 과연 무심히 대할수 있겠는가. 눈오는 날 개 싸다니듯 기광을 부리며 전쟁구호를 합창하는 그 꼴은 력사에 악명을 떨친 전쟁광신자들의 망동을 훨씬 릉가한다.

이런 극악한 호전광들이 제멋대로 날치는 한 이 땅에 평화가 깃들수 없고 사람들이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다는것을 온 겨레는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이 괴뢰호전광들을 지체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청산해버려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증오와 복수로 불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서슬푸른 총검이 저들의 숨통을 겨누고있다는것을 꿈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몇해전 연평도에서 우리에게 함부로 도발을 걸었다가 처참하게 얻어맞고 만신창이 되였던 그 수치와 악몽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제 또다시 전쟁모험에 나선다면 그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무자비한 불세례가 도발의 본거지들에 들씌워지게 될것이다. 북침전쟁현훈증에 들떠 칼물고 뛰뛰기하는 괴뢰호전광들에게 다시한번 엄숙히 경고한다. 그 누구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중구난방으로 떠들고있는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얼간이들도 새겨들으라.

우리가 이미 엄숙히 선언하였듯이 백두산혁명강군은 도발자,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도 모른다. 신성한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외세와 민족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짓뭉개버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깨끗이 청산해버릴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민족의 원쑤들을 씨종자도 없이 격멸소탕하고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천추에 용납 못할 로골적인 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해외동포단체들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17일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발벗고 추종해나서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에 따라 고안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더우기 이번에 강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작전임무로 하는 《〈한〉미련합사단》과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이 투입되고 모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에서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원칙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공화국의 엄정경고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략대상으로부터 비증유의 대미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본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최강국이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기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전쟁광란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온 겨레와 함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 *

총련본부 상임위원회들이 22일 성명들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단죄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상임위원회는 온 민족이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의지를 더욱 깊이 가다듬고있는 때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을 여느때없이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역도와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모든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여오다가 이번에 그 무슨 《지뢰폭발》이란 사건을 꾸며내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한층 미쳐날뛰고있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단체는 박근혜역도와 괴뢰호전광들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죄행을 감행하는것은 미국의 주도하에 강행하고있는 핵전쟁도발을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반공화국심리전을 정당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상임위원회는 관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이름으로 더러운 모략과 위험한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준렬히 단죄하며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인 심리전방송을 당장 걷어치우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괴뢰들이 아무리 민족대결소동에 광분하여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력사의 흐름을 역행시키지 못하며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상임위원회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미국의 지령에 따라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해내고 이를 구실로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에 무지막지한 포사격을 가한것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기어이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천추에 용납 못할 로골적인 침략전쟁책동을 오사까부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민족적의분을 한데 모아 견결히 규탄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미국이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을 시켜 사상 류례없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해나섬으로써 저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침략적인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단죄하였다.

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은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끝까지 주체조국을 견결히 옹위하여 싸워나갈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21일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당장 그만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심리전방송재개로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에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지뢰폭발》사고를 조작해놓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한것은 마치 군사적충돌을 념두에 둔 각본에 따른것 같아보인다.

북침을 가상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정세를 계단식으로 악화시키고있는 속에서 심리전방송을 계속 강행하는것은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다.

심리전방송은 그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조선에 대한 엄연한 선전포고이다.

때문에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해외동포들과 세계량심적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남조선당국이 최단시간내에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성원들과 재로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조치가 정당한 자위적조치라고 인정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심리전수단들을 당장 철거하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한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념원하고있다.

민족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말살하려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조선중앙통신】

도발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모략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하였다.

지난 17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괴뢰들을 대결과 충돌, 모략과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몬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방대한 규모로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은 그 침략성과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연습의 엄중성은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작전임무로 하는 미국남조선련합사단과 방대한 침략전쟁수단들이 투입되고 모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데 있다.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의 총체인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제도전복이며 신성한 령토강점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사상문화적침투와 《인권》소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고 횡포하게 감행한 올해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놓고보아도 오바마일당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올해벽두부터 《F-16》전투기 12대와 수백명의 병력을 본토에서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로 이동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켜 살벌한 전쟁분위기로 북남대화움직임을 차단한 오바마깡패집단이다. 또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증강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북조선위협》때문이라고 떠들며 《B-2》, 《B-52》전략폭격기들을 순환배치형식으로 조선반도주변에 투입하는 등 무력증강책동을 강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옹근 한개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한편 대규모련합해상기동훈련에 광분하였으며 남조선주둔 미군에 다련장로케트대대를 추가배치하는 놀음을 벌리는 등 끊임없이 전쟁준비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남조선괴뢰들과 그 무슨 억제전략위원회를 내오고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할 《4D작전계획》을 세운다, 최신무장장비들을 집중배치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아시아판나토인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획책한것도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그런가하면 미행정부관리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제재로 인한 경제적타격은 크지 않아도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것이 목적이라고 떠벌이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도수높게 단행하고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스툭스네트비루스를 리용하여 우리의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책동하다가 실패하였다는 자료가 공개되여 미국이야말로 싸이버공간의 파괴자, 싸이버테로의 원흉이며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고 발악하는 테로국가이라는것이 국제무대에서 여실히 증명되였다.

미국이 《북조선견제》의 미명하에 최신형 미싸일순양함을 일본에 배비한데 이어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일본에 끌어들이려 하고 남조선괴뢰들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괴뢰들이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 원자력기술수출 등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파괴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운운하면서 미국은 우리의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탄저균생산시설》로 둔갑시켜 남조선에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에 대한 국제적화살을 모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또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발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의 지하방어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올해에 강행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들은 오바마행정부가 력대 그 어느 행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전례없이 날뛰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총고하건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절대로 허물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다가 우리에게 얻어맞고 패배만 거듭해왔다. 이 법칙적인 전통을 오바마행정부가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지난 조선전쟁때는 물론 그후에 일어난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에 있은 직승기사건 등은 언제나 미국이 사죄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것으로 막을 내리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새 세기 부쉬행정부가 강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그 집중적표현이다.

그 어느 정권보다 호전적기질을 가진 부쉬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고립압살해보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우리와 공존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붕괴시키는것을 정책으로 정립하였다. 말로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침공할 의사도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제도붕괴를 최종목적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부쉬는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포함시키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숱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리였다.

그러나 미국은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보지 못하였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우리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미국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병탄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보유한 정치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우뚝 솟아올랐다. 핵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던 미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물론 미국의 추종세력들까지 그에 대해 인정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미국이 조선의 기분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였다고 하였다.

미국은 늦게나마 교훈을 찾아야 하였었다. 그러나 현 미행정부는 우리 체제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군사적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고있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였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비극은 오늘도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되였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지금 미국이 《목함지뢰》요, 《북포탄발사》요 하는 모략사건들을 괴뢰들이 꾸며놓게 하고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가동시킨다,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 어쩐다 하며 군사적압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놀래울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반타격과 반공격으로 끝까지 소멸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이다. 만일 미국이 지나간 력사에서 참패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돌이킬수 없는 대재난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줄것이다.

채 일 출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경축토론회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몽골, 나이제리아, 슬로벤스꼬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력사적전환점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몽골조선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전 주조 몽골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70년전의 조선해방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은 해방후 미제를 타승하고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따라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나이제리아선군정치연구소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주석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협회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로므니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가 얼마전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사상》에 《조선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45년 8월 15일 조선민족은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1930년 카륜회의에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남의 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평화적방법으로가 아니라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조국해방을 실현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비로소 과학적이며 옳바른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었다.

주석께서는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혁명군대를 강화하시는 한편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1936년 5월 5일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조선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하나의 기치아래 뭉쳐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전개하시여 마침내 일제를 패망시키시였다.

선군령도로 조선해방을 안아오신 그이의 업적은 세계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정정당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인사들 담화 발표 *

베닌사회주의당이 미국과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지지하여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침략적성격이 짙은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번 포격사건은 군사분계선상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내여 내외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북남관계의 파탄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으로부터 수세에 빠진 상황을 역전시켜보려는 자작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전면전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한 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하달하신 명령을 지지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도발행위는 위험계선을 넘어선 상태이다.

조선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오던 남조선괴뢰들은 20일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였다.

결과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위기에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하달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명령은 도발자들에 대한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로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고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야 할 때이다.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로골적이고 파렴치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남조선호전광들이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조선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방송을 중지할데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데 대하여, 그러나 도발광기에 열이 뜬 남조선호전광들이 8월 20일 36발의 포탄을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들을 목표로 발사하는 군사적망동을 저지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께서는 8월 20일 밤 긴급히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로 남조선의 전쟁광신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의 참혹한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호전적인 박근혜친미반역패당은 범죄적인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과 제도전복책동을 계속 감행하는 경우 운명의 림종에 탈하게 되리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남조선의 전쟁광신자들을 타도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중지하라!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나가라-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 *

가나, 만마인사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죠지 라우쏜은 21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년초부터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남조선당국은 그에 호응해나설대신 총을 내들었으니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렬한 행위이다.

나는 공화국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취한 조치를 정당한 자위적조치라고 인정하면서 가나민족민주대회 지도부를 대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을것이다.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낸다.

만마통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린 튼은 22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남조선군사깡패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있지도 않는 《북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들에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하여 단호히 규탄한다.

신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에 대한 무모한 포사격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더우기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조선반도의 전 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심리전방송과 악질반동단체들의 삐라살포행위는 명백히 조선을 반대하는 전쟁행위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분노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나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데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행위 등 정치군사적모략을 즉시 중지하며 이에 대하여 사죄할것을 요구한다.

* *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에브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지지하여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조선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도 성차지 않아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에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대응계획이 토의되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대화에 성의있게 나올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정정당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로씨야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외무상은 《북조선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구실밑에 아시아에 강력한 군사하부구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워싱톤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본, 남조선과 협력하여 전혀 필요없는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조선반도주변에 있는 대국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은 그들을 견제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의 《위협》을 운운하며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책동이다. 미국이 전개하려는 미싸일방위체계는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각이한 대상과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다.

그를 위해 미국은 《싸드》와 같은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X대역레이다의 탐지거리는 수천km로서 조선반도경내를 훨씬 벗어나 우리 주변나라들의 군사적움직임을 감시할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쟁적수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것으로 되고있다.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그 누구의 《위협》설은 《싸드》의 배비를 수월히 다그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군사적책동은 《싸드》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를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확대책동은 사실상 그들의 주장처럼 본토《방위》와 동맹국《보호》를 위한것이 아니다.

철두철미 반로씨야포위환형성을 다그치고 이 나라의 타격력을 약화시키기 위한것이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미 2009년에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란의 《위협》이 제거된다면 미국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없게 될것이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미국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며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포기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행하는것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세를 강화하고있다.

이에 대해 얼마전 로씨야는 미국과의 그 어떤 군비경쟁도 바라지 않는다는 자국의 립장을 밝히였다. 또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발언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 공식발언이라고 하면서 그 리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책동은 현재 발뜨해연안나라들에서 로씨야보도통로들을 차단하기 위한 로어사용대중보도수단들을 창설하려 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발뜨해나라들에서 로씨야공보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기자활동에 관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된 계획은 2016년 11월 30일까지의 기한으로 작성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계획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있다.

미국의 책동은 로씨야의 국제적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술책이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는 발뜨해연안나라들의 많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로어를 사용하는 통로와 라지오, 신문과 접촉하는데 습관이 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것은 가까운 앞날에 없앨수 없는것이기때문에 미국이 얼마만한 자금을 투자하든 그 발기와 구상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심히 유린되고있는 세계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세계제패야망에 들떠 주권국가들을 마구 짓몽개고 세계를 테로와 보복의 란무장속에 몰아넣는 주범인 미국은 이 행성에서 하루빨리 들어내야 할 불량배국가이다.

김 국 철

중동지역의 불안정에 계속 키질하는 위험세력

얼마전 이스라엘당국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1065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유태복고주의정책의 집요성을 또 한번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이스라엘은 수십년전 팔레스티나땅에 비법적으로 유태국가의 패말을 세운 때로부터 령토강탈행위를 일삼고 강점지역들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책동을 감행해왔다.

유태인정착촌건설은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야망의 직접적발현으로서 중동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평화회담도 진행되였지만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악화만 계속된 주요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에 있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집요하게 추구하는것은 그 과정을 통해 팔레스티나땅을 한치한치 먹어들어가 둥지를 틀고앉음으로써 온 팔레스티나를 영원히 저들의 령토로 만들자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2011년에만도 정착촌건설에 약 3억US$를 지출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으로 중동지역에서 약 5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티나피난민이 생겨났다.

이스라엘은 또한 유태복고주의정책을 힘으로 안받침하기 위해 군사적침략과 살륙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2008년 2월 《뜨거운 겨울작전》이라는 대규모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은 작전개시 5일동안에 120여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극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해에 있은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도 지역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은 수십대의 전투기와 직승기들을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지상군무력까지 투입하여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 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공공기관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페허로 되였다.

이것은 침략과 살륙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의 단면에 불과하다.

《도덕보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라.》, 이것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침략행위에 광분하는 이스라엘살인마들의 《군사교리》이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위로 팔레스티나땅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매일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모든 사실들을 통해 이스라엘이야말로 침략과 살륙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중동평화의 교살자, 지배주의자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중동지역을 침략과 파괴, 살륙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고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난 7월 국제대사령이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에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하면서 4일동안이나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13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것 등을 문제시하였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건설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또다시 드러낸데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팔레스티나대통령은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새로운 유태인살림집건설계획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중동평화과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파탄시킬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뉴질랜드외무상은 이스라엘당국이 새로운 유태인살림집들을 건설할데 관한 결정을 련거퍼 발표한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과정을 더욱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외무성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책동을 중동평화과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중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무당한 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의 대상으로 되는것은 마땅하다.

지난 수십년간 중동지역을 주요불안정지역의 하나로 만들어놓고도 성차지 않아 날이 갈수록 못된짓을 더욱 일삼고있는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51133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